ELIO’S LITTLE DISCOVERIES

A Place to Sit

돗자리와 바구니



7세 · Day 007 · 함께 읽기 · 2장면



Elio spread a little mat beside the pond. “A good place to sit,” he said.



He put the basket on the mat. “I can sit here,” he said, looking at the little space beside it.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연못가에 돗자리를 펴는 첫 그림을 함께 살펴요. 오늘은 엘리오 혼자 있는 두 장면만 읽어요.

함께 읽을 때

따옴표 속 말은 엘리오가 한 말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읽어요. 바구니를 놓은 뒤 남은 자리를 그림에서 손가락으로 짚어 봐요.

생각 나누기

바구니를 놓기 전과 뒤에 돗자리 위 빈자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림과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요.

생활에서

원하면 방석 위에 가방을 올려 보고 남은 자리를 함께 봐요. 따라 읽기나 역할 읽기는 선택이에요.

《A Place for Bori》의 같은 여섯 그림에 새 대사를 더한 함께 읽기 확장판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해독 자료가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2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